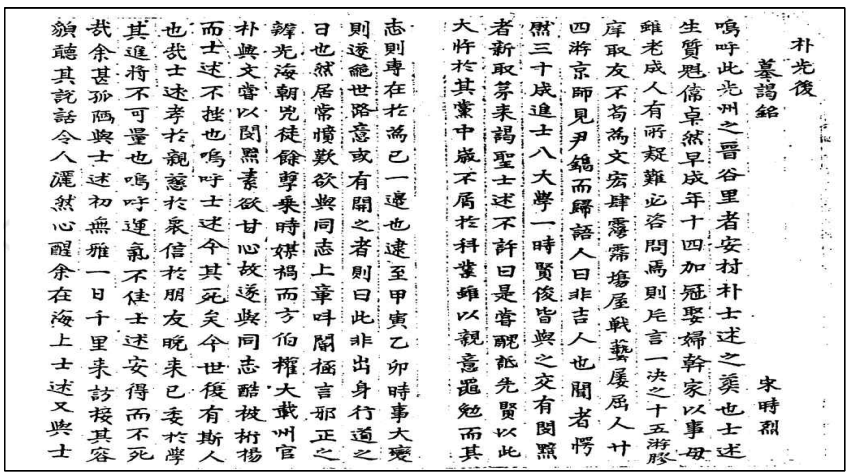
# 박광후(朴光後)

임태홍

박광후(朴光後, 1637~1678)는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 송시열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다. 그는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도(道)를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늘 나라에 도가 없음을 개탄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상소를 하거나, 궐문(闕門)에 가서 항의를 하였다. 혹독한 형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기개를 꺾이지 않았다. 마음 씀이 공명정대하고 불의에 굴하지 않아 생전에 호남의 대표적인 선비로 인정을 받았으나 42세가 되던 해 갑자기 사망하였다.


朴光後
墓碣銘
宋時烈
嗚呼此光州之晋谷里者安村朴士述之奚也士述
生質魁偉卓然早成年十四加冠娶婦幹家以事母
雖老成人有所疑難必咨問焉則斥言一決之十五游膠
庠取友不苟為文宏肆霧霈塘屋戰藝屢屈人廿
四游京師見尹鎬而歸語人曰非吉人也聞者愕
然三十成進士八大學一時賢俊皆與之交有閔熙
者新取第來謁聖士述不許曰是嘗詆訾先賢以此
大忤於其黨中歲不屑於科臺雖以親意黽勉而其
志則專在於為己一邊也逮至甲寅乙卯時事大變
則遂絕世路意或有關之者則曰此非出身行道之
日也然居常憤歎欲與同志上章叫閽極言邪正之
辨光海朝兇徒餘孽乘時媒禍而方伯權大載州官
朴與文嘗以閔熙素欲甘心故遂與同志酷被拘揚
而士述不挫也嗚呼士述今其死矣今世復有斯人
也哉士述孝於親慈於衆信於朋友晩來已委於學
其進將不可量也嗚呼運氣不佳士述安得而不死
哉余甚孤陋與士述初無雅一日千里來訪接其容
貌聽其說話令人灑然心醒余在海上士述又與士

우암 송시열이 지은 박광후의 묘갈명

**1637년(1세, 인조 15년)** 6월 2일에 광주(光州)의 아산리(지금의 비아 도천동)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사술(士述), 호는 안촌(安村)이다. 할아버지는 진사(進士) 박창우(朴昌禹)이며, 부친은 충의위(忠義衛) 박천용(朴天用)이다. 부친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모친은 남씨(南氏)이다. 할아버지 박창우는 호가 칠졸재(七拙齋)인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 의병을 일으켜 북으로 올라가 출정(出征)한 적이 있다. 송시열은 박광후의 묘갈명에 이렇게 적었다.

“박 사술의 본관은 평양(平陽, 즉 순천順天)이며 10대조 박석명(朴錫命)은 본조(本朝)의 훈신(勳臣)인데, 아마도 인수(仁叟, 박팽년朴彭年의 자字) 선생과 같은 집안일 것이다. 할아버지 박창우(朴昌禹)는 진사(進士)이고 아버지 박천용(朴天用)은 학문이 있었으나 일찍 별세하였으며, 어머니 남씨(南氏)는 성품이 엄하고 법도가 있었다.

박 사술은 홍씨(洪氏)를 아내로 맞아 한 아들과 여섯 딸을 낳았는데, 아들 박중회(朴重繪)는 사리에 밝고 재주가 뛰어나서 사우(士友)들이 칭찬하며, 네 딸은 다 사인(士人)의 아내가 되고 두 딸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

**1650년(14세, 효종 1년)** 남양 홍씨(南陽洪氏)를 아내로 맞이했다. 부친을 일찍 여의고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 어머니를 섬겼다.

**1651년(15세, 효종 2년)** 향교에 다녔다.

**1656년(20세, 효종 7년)** 송시열(宋時烈)과 송준길(宋浚吉)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을 배웠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정진하여 학식(學識)이 높았으며, 마음이 정대(正大)하고 조금도 불의(不義)에 굴하지 않아, 호남 선비들의 사표가 되었다. 그를 따라 남도에서 정상용, 박치도, 박상현, 박상진, 박광일, 박광원, 박광오, 박광선, 박광윤, 박중회, 박상지, 민사하 등 많은 학자들이 일어나 학통(學統)을 계승하였다.

**1660년(24세, 현종 1년)** 서울에 가서 윤휴(尹鑴)를 만났다. 고향으로 돌아가 주위사람들에게 윤휴를 평하기를 "길인(吉人,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1666년(30세, 현종 7년)** 식년사마시(式年司馬試)에 생원 3등으로 합격하였다.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가 학문 공부를 하였다. 과거 공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실천을 위한 학문에 힘썼다.

**1675년(39세, 숙종 1년)** 스승 송시열이 유배를 당하자 박광후는 광주, 나주, 장성 등 고을 유생들과 연대하여 구명운동을 펼쳤다. 이 일로 옥고를 치르게 되었으나 조금도 좌절하지 않고 스승을 따랐다. 이즈음 세상의 상황이 크게 변하여 출세할 생각을 접었다. 혹시 권하는 자가 있으면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도(道)를 행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늘 나라에 도가 없음을 개탄하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상소를 하기도 하고, 궐문(闕門)에 가서 호소하여 잘못된 일에 대해 극진히 말하여 항의하기도 하였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혹독한 형벌을 받기도 하였으나 기개를 꺾이지 않았다.

**1677년(41세, 숙종 3년)** 장기해변(지금의 포항 부근)에 유배중인 스승 송시열을 찾아가 위문하고, 순천박씨(順天朴氏)의 족보(族譜) 서문을 청했다.

**1678년(42세, 숙종 4년)**에 갑자기 안청동 외성당(畏省堂)에서 별세하였다. 부인 남양 홍씨(南陽洪氏)와 사이에 1남 6녀를 두었으며, 광주(光州) 진곡리(晉谷里)에 장사를 지냈다.

스승 송시열은 1680년 8월에 부탁받은 족보 서문과 묘갈명을 보내왔다. 묘갈명에서 송시열은 이렇게 말했다.

"아! 박 사술(박광후의 자)은 이제 죽었거니와, 지금 세상에 다시 이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는 어버이에게 효성하고 뭇사람에게 자상하고 벗에게 성실하였으며 늦게는 학문에만 종사하였으니, 그 진취는 장차 한이 없었을 것이다. 아! 운기(運氣)가 좋지 않으니, 그가 어찌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매우 고루하여 그와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하루는 천리 길을 찾아왔으므로 그 용모를 대하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시원히 마음을 각성하게 하였다. 내가 제주(濟州)에 있을 때에 그가 또 사우(士友) 몇 사람과 함께 보러 왔는데, 변을 겪고 험한 고난을 겪은 것이 이처럼 지극한데도 기개와 언론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내가 이 사람은 장차 은산 철벽(銀山鐵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갑자기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귀신이 어찌 어질지 못한가?"

송시열은 10여년이 지난 1689년 2월 18일, 기사사화(己巳士禍) 때에 제주도로 유배 가는 길에 광주의 안청동 부근을 지나게 되자 박광후가 세상을 떠난 고택 외성당을 찾아 그 감회를 적고 애절한 시 한 수를 남기고 길을 떠났다. 약 200년 후인 1879년 면암 최익현도 유배지 흑산도에서 풀려나와 상경할 때 외성당을 방문하여 외성당 방문기(訪問記)와 시 한 수를 남겼다.

박광후는 문집으로 『안촌집(安村集)』을 남겼는데, 4권 2책으로 목활자본이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기정진(奇正鎭)이 서문을 작성했으며, 송시열의 충절을 노래한 시가 많고, 이이와 성혼을 문묘에 배향해 달라는 상소문, 기축옥사에서 정철이 최영경(崔永慶), 이발(李潑) 등을 죽이지 않았다는 상소문, 옥중에서 동료들에게 보내는 편지 등이 실려 있다. 또 1677년 유배지에서 송시열의 말을 기록한 어록도 이 문집에 실려 있다.

**<참고자료>**

송시열, 「박광후묘갈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조인물고』, 1999
이미선, 「박광후」,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